

## 지역여건에 대한 평가와 삶의 만족

### The Evaluation for Regional Conditions and Satisfaction of Life

오 영 균\*

Oh, Youngkyun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조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민족을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대한 주민의 평가와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주민족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삶 만족도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설문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웰빙 개념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매개변수인 정주민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자본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 환경 등이 있다. 정주민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경제, 환경, 사회적 자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 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이며 집중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563)

\*\* 수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8. 8. 14, 심사기간: 2018. 8. 14~2018. 9. 21, 게재확정일: 2018. 9. 21.

□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정주민족, 정책우선순위, 삶의 질,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ondi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life centering on the settlement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population is rapidly decreasing, each local government has a task to increase the settlement population and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hrough nationwide surveys.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the community are selected from the community well-being concept, and the parameters and dependent variables for measur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these factors are selected and the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used Respectively. As a conclusion, they are shown that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influenced by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by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 The total effect of indirect effect and direct effect which affect the satisfaction of life through the parameter of residents satisfaction are significant variables such as local economy, environment, social capital, etc. It is noteworthy that social capital effect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ndividual 's life satisfaction.

□ Keywords: Community Well-being, Social Capital, Satisfaction of Residency, Quality of Life

## I. 서론

지방정부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적절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민의 객관적 생활조건의 향상을 위한 예산확대와 사업기획의 충실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의 총체적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주민 행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에서 시장경제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도 많고 또 개인의 일상적 생활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감사와 자족, 비교의 자제 등 정신적 태도와 종교적, 정신적 가치의 내재화가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이라는 조망을 통해 보면 행복문제는 결국 다학문적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공공부문의 임무와 역량 그리고 역할에 대한 고찰과 관심이 줄어들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일상적 삶에서 먹고, 이동하고, 즐기고 잠을 자는 모든 영역에서 공적 인프라와 서비스는 불가결하며 그 비중도 작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가치를 실현하며 주민의 웰빙에 크게 기여하도록 공공지출, 공공서비스체계와 내용을 개선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심화로 인한 지역의 인구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이 유입되고 있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주민 수, 지역내 생산가능인구, 지역내 출생률의 감소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은 주민 또는 잠재적 주민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정주민족도를 제고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1)</sup>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주민족도 제고 노력은 보다 큰 의미인 주민들의 삶 만족도를 높이는 흐름의 한 과정 또는 구성부문으로 이해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업구조개선이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정부가 기울이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정주민족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전체 삶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 분석해 보는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개별 항목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더 큰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며 이들 지출은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전략적 지향성을 가져야 하고, 이 경우 보다 효과적인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반 요인을 함께 고찰하는

1) 물론 예산제약하에서 정주민족도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과연 지역 주민 삶의 웰빙수준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해당 지역주민의 웰빙수준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유입되는 인구의 구성에 따라 결국 지역내 복지수요만 확대시켜 재정력의 고갈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의 전반적 경쟁력과 웰빙수준을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것은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커뮤니티웰빙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기능별 영역과 연관되는 커뮤니티웰빙의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이 때 정주의사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정주의사가 매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커뮤니티웰빙의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정주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Sally Ann Shumake et al(1982)에 의하면 발전적인 커뮤니티는 공동체 목표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내포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과 주민참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공이슈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여활동, 나아가서 공동체의 응집성을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이희창 외, 2004: 44-45).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출된 커뮤니티웰빙 핵심지표와 지역주민의 정주 만족과의 관계 그리고 주민들 삶의 만족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의 중요성과 이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커뮤니티웰빙

커뮤니티는 일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공통의 관점과 정서 그리고 이해를 공유하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는 외형적으로 관찰되는 실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내재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결국, 커뮤니티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서재호 외, 2012: 41; Morris et al, 1975). 또한 커뮤니티는 구성원간 심리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상호 작용하되 일회적이 아닌 지역모임이며 동시에 커뮤니티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내재화하

2) 최근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정주의사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 인프라구축, 보건소, 공원, 상하수도, 도서관 등 시설개선, 귀농보조금의 확대 등을 하고 있다.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이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정주의사를 높이는 것은 전체적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는 주체들이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적 성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up>3)</sup>

특별히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다양한 조직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사회적 유대, 정서적 공유, 활동적 협력 등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할 때 그 지역의 커뮤니티웰빙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니티란 다양한 조직규모와 내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내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위를 의미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최영출, 2015:73). 물론 사회적, 경제적 영역외에 주거 및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 등 여러 차원을 포함한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커뮤니티 웰빙은 특정 지방정부 부내에서 주어지는 외재적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on et al,1981). 또한 비록 아직 보편적으로 합의된 객관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적으로 의미있는 어떤 공공목표에 관해 구성원간 공감과 합의에 도달되도록 하는 인식과 상호작용의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Cox et al., 1989:72).

2000년대 이후 지역단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학계에서 수행되어 왔는데 주로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표를 선정하며 커뮤니티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실증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이승중(2005)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목적인 주민복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가치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의 커뮤니티웰빙 개념을 제안하였다. 서재호 외(2012)는 커뮤니티 웰빙을 커뮤니티 내에서 삶의 질이나 만족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구성요소를 첫째,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조건, 둘째, 주민참여 또는 임파워먼트(공동체 관여 등), 공공서비스 기여활동 등의 시민의 영역, 셋째, 정부 또는 공동체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로 구분하였다.

또한 커뮤니티웰빙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성숙과 발전가능성과 관련되는 사회적웰빙, 경제적 만족과 가능성과 관련되는 경제적웰빙, 주거 및 자연의 환경관련 웰빙, 개인건강과 관련되는 웰빙 등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기영화 외, 2012: 44).<sup>4)</sup> 이러한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는 지방정부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3) 이승중 외(2013: 315)에 따르면 공동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웰빙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내 웰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4)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커뮤니티웰빙 요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이승중 외, 2013: 316).

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주민의 생활여건 및 사회경제적 조건이외에도 전체적으로 공동체의 인프라 및 문화환경적 여건에 큰 영향을 주게되고, 이를 통해 각 주민이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커뮤니티웰빙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인 활동과 지원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수행할 임무이며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방향성이 된다.<sup>5)</sup>

## 2. 정주의사와 주민 삶의 만족

우리의 삶은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공간에 결부되어 진다. 또한 의사결정차원에서 각 개인은 이동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함께 할 공간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는 교통, 물가, 일터와의 거리, 교육 및 자연환경 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정주한다.<sup>6)</sup> 이 때 정주의 의사는 정서적 측면과 의지적 측면으로 구성된다. 전자를 강조하는 견해는 개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친밀도 내지는 자신을 그 지역사회에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의식(전상경, 2009), 또는 애착심 그리고 특정 지역환경에서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의식(Allard, S. W. & Danziger, S. 2000 ; Hidalgo and Hernandez, 2001)으로 보는 것이다. 후자를 강조하는 견해에는 각 개인이 커뮤니티에 있어서의 소속감과 애착심을 지니고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는 견해(이희창 외, 2004;최일진 남항우, 2015:4)가 포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주의식은 특정 사회의 물리적·정서적 여건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이며, 더 나아가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주의식은 지역 환경과 각 개인의 심리적, 경제적 특성이 결부되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의 형성과 강화에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의 수준이 중요하고 동시에 이러한 환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심리상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임미화, 2015: 108).

주민 정주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과거 물리적 환경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커뮤니티 의식 및 사회적 자본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커뮤니티 웰빙의 제 요인이 정주의식과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함께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러한 지방정부 역할수행을 통해 지역내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러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경로는 특별히 커뮤니티웰빙의 성과에 대한 측정과도 관련성이 높다.

6) 물론 개인이 고려하는 모든 요인이 충족되어야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매력이 있거나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면 선택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만족되어지거나 만족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생활환경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안정된 심리적 만족감이 형성될 때 정주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재·신남수, 1991: 264).

우선, 물리적 환경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조건의 변화가 결국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요인으로서 교육환경, 보건복지 환경, 문화환경, 경제여건, 자연환경, 주택환경, 교통편의, 발전기대, 공동체 안전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최일진·남황우, 2015). 일부 정주의식과 물리적 환경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하는 연구결과(김종재·신남수, 1991)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물리적 요인들과 정주의사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사회자본과 정주의식의 관계에서는 사회자본이 높아질 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주거이동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다. 사회자본과 정주의식과의 관계는 직간접적인 사회자본 효과를 고찰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직접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통해 지역공동체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안정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지역의 주민에 비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다는 것이다(Giulietti, C.2014). 또한 지역사회 규범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구성원 간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규범의 내용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주거이동의 동기가 강해질 수 있으며(Morris & Winter, 1975), 이웃 간에 활발한 상호교류의 활성화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강하게 한다고 본다(Hidalgo & Hernandez, 2001). 간접적인 효과로는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결국 주거이동의 동기가 제약되는 것이 된다(Giulietti, C. 2014). 결국 이웃 간 결속과 이웃 특성이 거주지역의 만족도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내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면 이웃만족도가 낮아지고 이주의 동기를 높여 이주원인을 제공하며, 공동체적 규범의 내재화를 통해 주민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결속력과 유대가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내 문제상황을 통제하여 주민의 이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본다(이희창 외, 2004:4). 한편,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활발히 공급하면 주민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공공서비스성공에 따라 주민간 이동 패턴이 변화될 수 있다(South & Crowder, 1997). 따라서 주민의 거주만족도를 높이고 정주의식을 향상시키려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영향력이 클 수 있다(최일진 남황우, 2015). 이는 지역내 공공환경이 개선될 때 지역평판이 높아지고 주민의 정주의식이 고양되어 인구유입의 초과가 이루어지면 지방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유호룡, 2009: 26). 이외에도 정주의사결정에 미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관련하여서는 성, 연령, 학력, 소득수준, 혼인, 주택소유, 경제력 등도 논의된 바 있다(유호룡, 2009; 전성표, 1998; 최열, 1999; 임미화, 2015; 최일진·남황우, 2015; Oh, 2003; South& Crowder, 1997).

### Ⅲ. 조사설계

####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0월초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이루어졌다. 총 설문응답수는 2700개였으며, <표 1>은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유무, 거주지역 특성이 포함 되어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1339명으로 49.6%, 여성이 1361명으로 50.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둘째, 연령의 경우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60대가 조금 많고, 70대 이상이 6.6%로 적다. 셋째,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1638명으로 60.7%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이 40명으로 1.5%의 적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넷째, 거주지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많은데 이는 지역별로 일정한 수의 설문을 배포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종교여부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경우가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중간계층에 속하는 비중이 높고 상위계층이 4.1%로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표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표 1>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성별	여성	1361	50.4	연령	20대 이하	421	15.6
	남성	1339	49.6		30대	414	15.3
40대					504	18.6	
					50대	537	19.9
					60대	647	24.0
					70대이상	177	6.6
거주	수도권	700	25.9	종교	유	960	35.6
	비수도권	2000	74.1		무	1740	64.4
학력	고졸이하	1638	60.7	사회경제적지위	상	110	4.1
	대졸	1011	37.4		중	2212	81.9
	대학원이상	40	1.5		하	378	14.0



## 2. 변수 및 가설의 설정

전국적인 차원에서 커뮤니티웰빙 요인과 삶의 만족도관계 그리고 정주민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제반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커뮤니티웰빙과 정주민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졌던 교육, 교통, 공공서비스, 사회적 자본, 환경, 보건복지, 지역경제, 안전 및 지방행정서비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수	개념	측정항목	
독립변수	교육	교육환경 수준	공공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지역내 학교수준
	지역경제	지역내 경제여건	일자리, 지방정부 살림살이, 지역경제 활성화정도, 소요 생활비
	지역문화	문화생활 체감수준	문화활동, 지역내 문화시설, 전통문화가치
	환경	전반적인 생활환경 여건 만족수준	쓰레기, 공기오염도, 공원녹지, 지역내 수질, 거리 청결도, 소음
	교통	교통의 편리성 수준	대중교통, 도로 유지보수, 교통체증, 보행자 편의성
	안전	지역내 안전수준	재난 대비, 치안 및 경찰서비스
	보건복지	지역내 보육복지 수준	건강, 의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사회적 자본	지역내 사회적 자본의 수준	지역사회 참여, 끈끈함 및 협력활동, 지역주민 신뢰, 관청에 대한 신뢰
	공공서비스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수준	민원서비스의 간소화 및 편의, 업무처리 공정성
매개변수	지역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워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정도	지역 생활만족, 계속적 지역 거주의향	
종속변수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정도	삶 자체에 대한 만족, 삶의 의미, 삶의 즐거움	

Giulietti, C. (2014)은 웰빙의 영향요인을 선정하고 분석하면서, 이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지향이기때 지방정부는 여기서 주민의 삶의 각 영역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였다. 즉, 커뮤니티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도서관, 공원 등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핵심요소로 포함하여

야 하며, 결국 다양한 차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정부는 공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웰빙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사회의 각 영역에서의 웰빙 지향적 활동을 창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서재호 외, 2012:49). 이러한 관점에서 OECD는 Better Life Initiative를 통해 주택, 일자리, 보건, 시민참여, 서비스 접근성, 교육, 안전, 소득, 환경의 9개, 특별히 일자리에 고용율과 실업율을 포함하며 건강에 기대수명과 사망률을 포함함으로써 모두 11개의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있다(OECD, 2014). 특히 지역 공동체수준에서 주민의 체감 영역은 주민복지, 교육·문화 및 사회·안전·환경임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둔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인석(2015)은 측정지표가 너무 복잡하면 실제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영화 외(2013)가 제시한 Kee 모형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한정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우창빈(2015)은 Kee 모형의 인적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과 개인별 특성지표가 공동체수준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인 수준과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영향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최영철(2015)은 지방재정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여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변수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 부문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에 외(2016)는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 웰빙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면서 지역경제 상황, 거리 청결도와 녹지 공간, 인터넷 제공 수준, 봉사활동, 시민참여, 지역 교류 등의 지표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커뮤니티웰빙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고 아래의 가설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정주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는데 매개변수로서의 정주의식은 지역에서 공동체의 자산에 대한 심리적 만족과 애착을 토대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서 삶의 만족은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 만족정도로써 삶 자체에 대한 만족 및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주민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가설 : 교육여건, 지역경제, 지역문화, 환경, 교통여건, 안전, 보건복지, 사회적 자본, 공공 서비스는 삶의 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정주의식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정주만족도는 지역에 대해 고착적이고 생활기간에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전 생애주기적 삶의 만족도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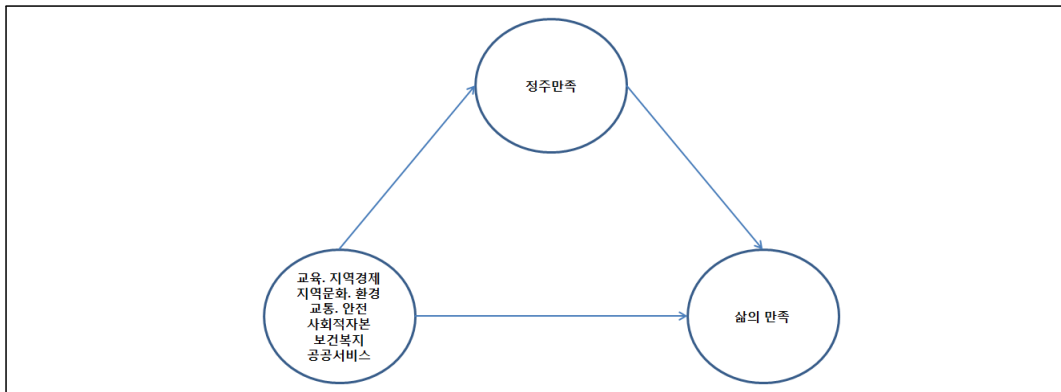
연구문제 2: 정주의사를 매개로 커뮤니티웰빙 요인들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인과관계 구조는 어떠한가?

가설 2: 교육여건, 지역경제, 지역문화, 환경, 교통여건, 안전, 보건복지, 사회적 자본, 공공서비스는 정주의사를 매개로하여 삶의 만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논의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가설모형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나 전국적인 형평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의 웰빙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커뮤니티 웰빙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각 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요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담아 독립변수로 커뮤니티웰빙을 구성하는 교육여건, 지역경제, 지역문화, 환경, 교통, 안전, 보건복지, 사회적 자본, 공공서비스를 선정하였다. 교육여건 등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비록 웰빙수준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는 하나 각 개인의 수요가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총수요로 집약될 수 있듯이 해당 커뮤니티라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간주관성을 통해 집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독립변수들은 정주민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지역의 제반 여건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정주민족을 높여서 지역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주민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이 지향하는 목적가치가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므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 IV. 분석결과

### 1. 측정모형의 검증

#### 1) 모형 적합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CFI(Comparative Fit Index)는 0.929 TLI (Tucker-Lewis Index)는 0.919,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052,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는 0.038로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한 Cronbach alpha,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alpha 값은 모두 0.7 이상이며 C.R. 값 역시 모두 0.8 이상, 그리고 AVE 값은 모두 0.5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잠재변수들은 수렴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잠재변수의  $\sqrt{AVE}$  값이 다른 잠재변수들과의 상관관계보다 커서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8)</sup>

<표 3> 모형의 검증

구 분	Alpha	C.R.	AVE	$\sqrt{AVE}$
교육	0.802	0.812	0.594	0.770
지역경제	0.860	0.862	0.611	0.781
지역문화	0.814	0.827	0.618	0.786
환경	0.851	0.855	0.497	0.705
교통	0.814	0.815	0.525	0.725
안전	0.723	0.727	0.572	0.756
보건복지	0.883	0.884	0.608	0.779
사회적자본	0.802	0.862	0.610	0.781
공공서비스	0.860	0.917	0.787	0.887
정주민족	0.814	0.760	0.613	0.783
삶의만족	0.883	0.886	0.723	0.850

<sup>8)</sup> 예컨대 <표 3>을 보면, 교육의  $\sqrt{AVE}$  값은 0.77로서 교육과 환경의 상관관계인 0.69, 교육과 정주민족과의 상관관계는 0.55 등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직·간접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아래의 <표 4>를 보면 매개변수인 정주민족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 $\beta = .864, \rho = .000$ )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삶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 영향 요인은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이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경제, 환경 등이 있다. 정주민족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모두 합한 총 효과가 유의미한 변수로는 지역경제( $\beta = .197, \rho = .021$ ), 환경( $\beta = .215, \rho = .000$ ), 사회적 자본( $\beta = .386, \rho = .003$ ) 등 3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효과의 개인의 삶 만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표 4> 효과분석

구 분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z-value	표준화 회귀계수	P( z )
정주민족효과		0.937	0.035	26.492	0.864	<b>0.000 ***</b>
교육	직접효과	0.049	0.058	0.397	0.054	0.847
	간접효과	0.007	0.060	0.123	0.008	0.902
	총 효과	0.057	0.070	0.815	0.062	0.415
지역경제	직접효과	0.006	0.066	0.089	0.006	0.929
	간접효과	0.175	0.069	2.536	0.191	<b>0.011 *</b>
	총 효과	0.181	0.078	2.310	0.197	0.021
지역문화	직접효과	-0.039	0.063	-0.625	-0.049	0.532
	간접효과	-0.035	0.066	-0.530	-0.044	0.596
	총 효과	-0.074	0.076	-0.976	-0.093	0.329
환경	직접효과	0.030	0.051	0.584	0.025	0.559
	간접효과	0.223	0.053	4.193	0.190	<b>0.000 ***</b>
	총 효과	0.252	0.060	4.206	0.215	<b>0.000 ***</b>
교통	직접효과	0.092	0.121	0.765	0.093	0.445
	간접효과	0.134	0.124	1.080	0.135	0.280
	총 효과	0.227	0.145	1.560	0.228	0.119
안전	직접효과	-0.170	0.132	-1.293	-0.184	0.196
	간접효과	-0.070	0.134	-0.526	-0.076	0.599
	총 효과	-0.241	0.160	-1.506	-0.260	0.132
보건복지	직접효과	-0.168	0.108	-1.558	-0.141	0.119
	간접효과	0.125	0.113	1.102	0.104	0.271
	총 효과	-0.044	0.129	-0.339	-0.037	0.735
사회적 자본	직접효과	0.263	0.100	2.632	0.291	0.008
	간접효과	0.086	0.102	0.848	0.095	0.396
	총 효과	0.349	0.120	2.920	0.386	<b>0.003 ***</b>
공공 서비스	직접효과	-0.084	0.049	-1.706	-0.102	0.088
	간접효과	0.004	0.051	0.072	0.943	<b>0.004 ***</b>
	총 효과	-0.080	0.059	-1.367	-0.097	0.171

\*  $\rho < .05$ , \*\*  $\rho < .01$ , \*\*\*  $\rho < .001$

## V. 결 론

이상의 연구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정주민족은 매개변수로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특정지역에 있어서 정주여부는 물론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함에 존재이유가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들의 정주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생활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갈 때 추가되는 편익이 지역 간 이동 등에 따르는 비용을 초과한다면 지역에 대한 유입 압력이 유출압력보다 커져 인구의 순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지방정부의 인구 순증이 단지 복지수요자들에 대한 편익증대에 그치면 오히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공공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 앞에서 정주의식을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만족감이며,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적 제약속에서 삶의 만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커뮤니티웰빙 조건이 1차적으로 정주민족도를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이러한 정주민족도가 포함하는 기간과 공간적 범위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주민족을 포함하는 생애주기적 삶의 만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연구결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사는 지역으로 물질적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자본은 지방자치를 통한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본질적 요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 민주성 및 반응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권경득, 1998: 71). 따라서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의 경우 더욱 지역주민과의 신뢰감을 쌓아야 하며 주민이 일상에서 직면하는 사회문제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소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기영화 외, 2013:2). 이것은 지방정부의 책무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정서적 여건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예산지출은 대부분 물리적 인프라구축과 복지서비스 확충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물리적 여건의 개선과 복지서비스 총량이 지역경쟁력이나 삶의 질을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이 예컨대 지방정부 재정력의 우열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오영균, 2017; 최일진 남황우, 2015:4). 또한 재정적, 물리적 여건이 좋은 지방정부도 자원의 희소성, 자원의 한정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비물질적, 비경제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

매우 긴요한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환경, 사회적 자본에 집중하여 정주민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을 제고하는 인과관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단년도 횡단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계열적인 정주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학군, 집값 상승 등 실질적으로 정주민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분석결과표에서 음(-)의 관계가 나오는 변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논외로 하였으나 지역문화, 안전 변수의 경우 직간접 및 총 효과 모두 음의 관계로 나온 것 그리고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상쇄관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기영화 외. (2013). 커뮤니티 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1): 1-35.
- \_\_\_\_\_. (2014). 커뮤니티 웰빙의 다면적 주관적 인식 및 객관적 조건과 비교. 「지방행정연구」, 28(4): 39-71.
- 김경아·조영민. (2016). 지역정책 및 어메니티의 공간성과 창조성이 지역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20(3): 119-146.
- 김보현·최화식. (2004). 수도권 자치단체 간 주거지 이동의 영향요인: 지방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8(1): 137-164.
- 김병석·서원석. (2014). 지역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1-14.
- 김상원. (2013). 경기도 시·군 인구의 전출입 특성과 지역산업의 관계 분석. 「국토연구」, 76: 81-92.
- 남찬섭. (2016).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 23(4): 3-33.
- 서인석 외. (2014).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 적합성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4): 29-54
- 서인석 외. (2015). 주관적 웰빙과 소득: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의 한계성 및 상대성 검증. 「지방행정연구」, 29(1): 127-152.
- 서인석. (2016).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의 핵심지표 도출. 「한국지방정부학회」, 15(4): 171-188.
- 서재호 외.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송영찬·김민곤.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151-179.
- 석호원. (2012). 고령집단의 인구이동 요인에 관한 연구: 티부의 가설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273-312.
- 신진옥·서준상. (2016).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 23(4): 61-89.
- 유재원. (1999). 단체장 민선이후 자치단체의 정책변화: Peterson의 도시한계론 검증. 「한국정책학회보」, 8(3):79-98.
- \_\_\_\_\_. (2011). 도시한계론의 핵심 가정에 대한 경험적 검증. 「한국행정학보」, 45(1): 101-121.
- 윤영진. (2013). 복지재정 수요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지방행정연구」, 27(4): 31-65.



- 이미애 외.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 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
- 이성우. (2002).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이동과 연계이동. 「지역연구」, 18(1): 49-82.
- 이승중. (2005).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한국행정학보」, 34(4): 197-215.
- 이승중 외. (2013). 커뮤니티 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오영균. (2017). 지방재정특성이 커뮤니티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1(3), 171-194.
- 유호룡. (2009).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기대와 정주의식 측정분석: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1(2): 23-43
- 이경환. (2008).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3(5): 23-33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9
- 임미화. (2015).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定住)의식에 관하여: 생활환경만족도와 도시 위험도를 중심으로
- 우창빈. (2015). 목표로서의 커뮤니티 웰빙 개념과 측정의 탐색: 삶의 만족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5(2): 27-41.
- 장덕희. (2013).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반재원이 자치단체의 기능별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정책기능별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2(1): 1-24.
- 전상경. (2009). 티보의 지방공공재이론.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 편. 현대 지방 재정의 주요 이론. 서울:대영문화사.
- 최말옥·문유석. (2011). 부산지역주민의 행복감 영향요인분석. 「지방정부연구」, 15(1). 277-297.
- 최영출. (2014). 지역주민의 생활여건과 행복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8(1). 1-23.
- 최영출. (2015). 커뮤니티 웰빙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관계. 「한국비교정부학보」, 19(2): 71-91.
- 최영출. (2015). 지역사회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티웰빙 요소의 인과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9(2): 1-17.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8집 제3호: 1-30.
- 최정열·박석희. (2014). 지방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선호: 개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영향 비교. 「지방행정연구」, 28(4): 99-125.

- Allard, S. W. & Danziger, S. (2000). Welfare Magnets: Myth or Reality?. *The Journal of Politics*, 62(2): 350-368.
- Cox, D., Frere, M., West, S., & Wiseman, J. (2010).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Autumn.
- Fox, W. F., H. W., JR. Herzog & A. M. Schlottman. (1989). Metropolitan Fiscal Structure and Migratio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9(4): 523-536.
- Giulietti, C. (2014). The Welfare Magnet Hypothesis and the welfare take-up of Migrants: Welfare benefits are not a key determinant of migration. *IZA World of Labor*
- Glaeser, E. (2011). *Triumph of the City*. New York: The Penguin Press.
- Herzog, H. W., Jr. & A. M. Schlottman. (1986).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Recent Migrants? *Journal of Urban Economics*, 25: 1-16.
- Knapp, T. A. & N. E. White. (1992). Migration Decision and Site-Specific Attributes of Public Policy: Microeconomic Evidence from the NLSY. *Review of Regional Studies*, 22: 169-194.
- Levine, P. B., & Zimmerman, D. J. (1996).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elfare Magnet Debate Using the NLS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2(3): 391-409.
- Logan, J. R. & H. L. Molotc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ates, W. E. (1969). The Effect of Property Taxes and Local Public Spending on Property Values: An Empirical Study of Tax Capitalization and the Tiebout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7: 957-971.
- OECD. (2014).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Paris: OECD.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11.
- Peterson, P. E.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erson, P. E. & Rom, M. (1989). American Federalism, Welfare Policy, and Residential Choi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3):711-728.
- Hidalgo, M. C.,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 Sally Ann Shumaker, Daniel Stokols. (1982). The psychological context of residential mobility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149-171

- Smith, Jan Pieter & Hoekstra, Rutger. (2011).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etal Progress: Overview and Conceptual Approach. Statistics Netherlands, pp: 1-106.
- South, Scott J., Crowder, Kyle D. (1997). Escaping distressed neighborhoods: Individual, community, and metropolitan influ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4): 1040-1084.
- Morris, Earl W., Winter, M. (1975). A theory of family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9.88.
- Wiseman, J. &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3): 353-366.

---

**오 영 균:** 1997년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성과혁신,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의회 지원기구 직무역량 및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요인에 관한 연구(2015), 한국행정과 효율성(2016), 지방재정특성이 커뮤니티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7) 등이 있다(skyward21@suwon.ac.kr).

